



KIA 김도영이 3일 SSG 랜더스 필드에서 열린 SSG와의 원정경기에서 7-6으로 앞선 9회초 선두타자로 나와 홈런을 기록한 뒤 주먹을 친 채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3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1 울산 현대와 광주FC의 경기에서 광주 베카가 골을 넣고 세리머니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KIA 8연승 ... 3위와 1.5게임차



'호랑이 군단'이 8연승 질주를 하면서 3위 SSG를 1.5경기 차로 추격하면서 4위로 올라섰다.

KIA가 3일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벌어진 SSG 랜더스와의 시즌 13차전에서 8-6 재역전승을 거뒀다.

5개의 홈런을 주고받은 끝에 만든 8연승이다. 이 승리로 KIA는 NC를 따돌리고 4위로 올라섰다. 또 3위 SSG를 상대로 3전 전승을 이루면서 1.5경기 차까지 추격했다.

8월 22일 KT전 이후 어깨 염증으로 자리를 비웠던 이의리가 다시 선발로 출격했다. 건강하게 돌아왔지만 이의리의 복귀전 성적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1회초 투타자 박찬호가 볼넷으로 출루한 뒤 도루로 상대를 흔들었다. 김도영의 볼넷과 최형우의 적시타를 묶어 2-0으로 앞선 상황에서 시작된 1회말. 이의리가 추신수에게 던진 4구째 직구가 좌중간 담장을 넘어가면서 2-1이 됐다.

이의리는 김강민을 헛스윙 삼진, 강진성을 좌익수 플라이로 잡은 뒤 최정에게 우익수 키 넘는 2루타를 허용했다. 공을 쫓던 나성범이 우측 외야 펜스 문이 열리면서 넘어진 사이 최정이 3루까지 향했지만, 볼데드가 선언되면서 2사 2구가 됐다.

이의리는 9구 승부 끝에 박성환의 방망이를 헛돌게 하면서 추가 실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황대인의 투런포로 4-1로 달아난 2회말, 이의리가 다시 또 피홈런을 남겼다.

선두타자 김성현에게 좌측 2루타를 허용한 이의리는 하재훈을 삼진으로 처리했지만 오태근을 볼넷으로 내보냈다. 이어 광주일고 시절 배터리로 호흡을 맞췄던 SSG 포수 조형우와 마주한 이의리는 6구 승부 끝에 좌월 동점 스리런을 허용했다.

볼넷으로 3회를 시작한 이의리가 이후 세 타자를 번타로 돌려 세웠지만 투구수가 85개에 이르렀고, 복귀전은 3이닝 4피안타 3볼넷 4탈삼진 4실점으로 끝났다.

3회에 이어 4회, KIA의 공격이 삼자범퇴로 마무리됐다. KIA는 이의리에 이어 박준표를 투입해 4

NC 따돌리고 4위로 '썩썩' 김도영·황대인 홈런포 폭발 뜨거운 방망이로 연승 또 연승

회를 실점 없이 막았다. 그리고 5회 두 팀이 점수를 주고받았다.

5회초 2사에서 박찬호가 우중간 2루타로 출루한 뒤 김도영의 적시타로 홈에 들어오면서 KIA가 다시 5-4의 리드를 잡았다. 하지만 5회말 박준표가 무사 1루에서 최정에게 역전 투런포를 허용했다.

박찬호의 좌전안타와 김도영의 볼넷으로 만들어진 7회 1사 1·2루에서 나성범과 최형우가 번타로 몰려나면서 분위기가 SSG로 넘어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7연승을 이끌었던 KIA 방망이는 식지 않았다.

5-6으로 뒤진 8회초 1사에서 김선빈이 우전안타를 만들었다. SSG가 고효준을 내리고 마무리 서진용을 투입하는 강수를 뒀지만 KIA의 불붙은 타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황대인과 김태군의 연속안타로 승부를 원점으로 가져온 KIA는 1사 1·2루에서 나온 대타 고종욱의 적시타로 7-6, 역전극을 연출했다. 9회에는 김도영이 바뀐 투수 이로운의 2구째 직구를 우측 담장 밖으로 날려 8-6을 만들었다.

2점의 리드를 안고 9회말 마무리 정해영이 마운드에 올랐다.

대타 한유섬을 중견수 플라이로 잡은 정해영은 추신수의 방망이를 헛돌게 하면서 투아웃을 채웠다. 이어 최지훈을 2루 땅볼로 잡으면서 정해영이 KIA의 8연승에 마침표를 찍고, 13번째 세이브를 수확했다.

KIA는 문학 3연전에서 장단 39안타로 30점을 만드는 뜨거운 화력을 발휘했다. 8개의 홈런도 쏟아졌다. 나성범이 2개의 홈런을 날렸고, 오선우가 대타로 나와 시즌 첫 타석에서 홈런으로 첫 안타를 신고했다. 박찬호와 한준수도 그라운드를 돌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미쳤습니다

### 광주FC, 선두 울산 꺾고 3위 수성



광주FC가 '호랑이 굴'에서 구단 최다승 기록을 새로 작성했다.

광주FC가 3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023 2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진 상황에서 1위 울산을 상대로 9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달렸다. 또 이날 승리로 시즌 12승에 성공하면서 광주는 팀의 1부리그 최다승 기록을 갈아치웠다. 앞선 기록은 2016시즌 기록한 11승이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울산의 절대적인 우위가 점쳐지는 경기였다. 광주 공격의 핵심인 엄지성과 허술이 울림픽대표팀 잠가로 자리를 비웠고, 7골로 팀 최다 득점자인 아사니는 경교 누적으로 경기를 뒀 수 없던 상황. 부상으로 수비 핵 티모까지 빠지는 등 전력 누수 속에 광주는 1위 독주 중인 울산을 적지에서 마주했다.

전반전 점유율은 38%로 광주가 뒤졌지만, 선제골은 광주의 차지였다.

전반 3분 이희균의 슈팅과 함께 광주가 1위 울산을 상대로 공세를 시작했다.

전반 6분 울산 이동경의 왼발슈팅이 나왔지만 광주 수문장 김경민에 막혔다.

전반 15분 광주가 다시 공격을 전개했다.

정호연이 박스 왼쪽에서 문전으로 달려들던 이희균을 향해 패스를 했지만 울산 골키퍼 조현우가 달려나와 공을 누아냈다. 하지만 2분 뒤 광주가 골 세리머니를 했다. 주인공은 이희균이었다.

이희균이 3명의 울산 수비진에 둘러싸인 채 공을 다뤘다. 이어 뒤로 흐른 공을 페널티 박스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희균이 잡았다. 이희균은 골키퍼를 따돌리고 왼발로 슈팅을 날리면서 선제골을 장식했다.

전반 30분에는 김경민이 울산 흐름을 꺾었다.

루빅손이 문전에서 머리로 패스를 연결했다. 하지만 김경민이 골대 왼쪽에 있던 마틴 아담의 머리에 공이 닿기 전에 편직으로 공격을 막았다.

이희균·베카 연속골 2-0 승리·9경기 연속 무패행진 시즌 12승·팀 1부리그 최다승

전반 38분 광주가 자책골로 득점을 더하는 것 같았다.

두현석의 패스가 골대 왼쪽에 있던 베카에게 연결됐고, 베카가 중앙에 있던 이희균을 향해 패스를 했다. 이희균이 앞서 울산 김영권의 발에 공이 맞았지만, 공이 살짝 골대를 벗어났다.

전반 42분에는 광주가 한숨을 돌렸다. 문전에서 울산 이동경이 좋은 슈팅 기회를 맞았지만 공이 빗맞으면서 힘 없이 바운드가 됐다.

전반 막판 광주가 이승운과 이순민을 앞세워 추가골 사냥에 나섰다. 득점에 실패, 1-0에서 전반전이 마무리됐다.

후반 시작과 함께 이정호 감독이 이승운을 대신 해 토마스를 투입하면서 변화를 줬다. 그리고 후반 9분 만에 기다렸던 골이 나왔다. 시즌 중반 산드로의 대체 선수로 팀에 합류한 베카가 K리그 첫 골을 장식했다.

이희균의 슈팅이 상대에 맞고 흘렀다. 베카가 흐른 공을 잡아 오른발로 시원한 논스톱 슈팅을 날리며 울산의 골망을 흔들었다.

광주가 2점의 리드를 잡았지만 승리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었다. 후반 중반 이후 울산이 매서운 공격으로 광주를 공략했다.

후반 21분 울산 주민규의 오른발 슈팅이 광주 골대로 향했지만 골키퍼 김경민이 공을 품에 안았다. 1분 뒤에는 마틴 아담의 헤더가 나왔지만 바운드된 공이 광주 골대 옆으로 빠져나갔다.

후반 38분과 41분에는 루빅손의 오른발과 바코의 왼발이 광주 골대를 노렸지만 김경민이 이를 저지했다. 후반 추가 시간에는 바코의 오른발 슈팅이 골대 위로 뜨면서 광주는 무실점으로 팀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손흥민 해트트릭 ... 평점 10점 'MVP'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28년 만에 3명이 같은 날 해트트릭을 폭발하는 진기록이 나왔다.

한국 축구간판 손흥민(토트넘), 현역 최고 스트라이커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 2004년생 아일랜드 '신성' 에번 퍼거슨(브라이턴)이 그 주인공이다.

손흥민은 2일(현지시간) 영국 버리의 터프 무어에서 열린 2023-2024 EPL 4라운드 버리와 원정 경기에서 전반 16분, 후반 18분, 21분 득점포를 가동하며 토트넘의 5-2 대승을 이끌었다.

홀란도 같은 날 풀럼과 홈 경기에서 후반 13분과 25분 골망을 흔들었고, 추가 시간에 세르히오 고메스가 내준 땅볼 크로스를 마무리하며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홀란의 맹활약에 힘입어 맨체스터 시티는 5-1

토트넘, 5-2 번리에 대승 맨시티 홀란·브라이턴 퍼거슨 EPL서 하루 3명 해트트릭

로 패승을 쟁했다. 퍼거슨도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에서 불을 뿜었다.

전반 27분 골맛을 보더니 후반 20분과 25분 연달아 또 골망을 흔들며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의 3-1 승리를 완성했다.

축구 기록 전문 매체 유폴타에 따르면 EPL에서 하루 사이 해트트릭의 주인공 3명이 동시에 나온 경우가 이전에 딱 한 번 있었다.

리버풀, 블랙번 로버스,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뒀 로비 파울러, 앨런 시어러, 토니 예보아가 1995년 9월 23일 동시에 해트트릭을 작성했다.

당시 리버풀은 볼턴 원더러스를 5-2, 블랙번은 코번트리 시티를 5-2로 각각 잡았고, 리즈는 워털루FC를 4-2로 격파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에 이어 올 시즌도 마수같이 득점을 해트트릭으로 터뜨리며 토트넘의 3연승을 이끌었다. 손흥민의 EPL 통산 네 번째 해트트릭이다.

맨체스터 시티도 개막 4연승을 질주하며 단독 선두가 됐다.

4경기에서 벌써 6골을 몰아친 홀란은 득점 선두로 올라섰다. 지난 시즌부터 프리미어리그에서 뒀 홀란의 리그 5호 해트트릭이다. 홀란은 지난 시즌에도 36골을 터뜨리며 EPL 시즌 최다 골 기록과 함께 득점왕 타이틀을 따냈다.

루턴 타운과 개막전(4-1 승) 종료 직전 골맛을 보며 새 시즌 산뜻한 출발을 알린 퍼거슨도 3골을 더해 홀란에 이은 득점 2위까지 올라섰다.

<연합뉴스 제공>



광주 여자프로배구단 AI페퍼스가 다음 달 V-리그 개막을 앞두고 이달부터 지역 말로 새 단장한 선수단 버스를 시내 곳곳에서 운행한다. <AI페퍼스 제공>

### 광주 AI페퍼스 선수단 버스 사투리로 새 단장

광주 여자프로배구단 AI페퍼스 선수단 버스가 사투리로 새 단장했다.

AI페퍼스는 다음 달 시작하는 2023-2024 V-리그를 앞두고 이달부터 지역 말을 입힌 선수단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선수단 버스에는 '겨울엔 배구 보러 와야쓰겠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네 '광주 스포츠에 배구도 있다!'는 문구가 띄어 놓였을 뿐이다.

AI페퍼스 관계자는 "올해 처음 선수단 버스를 활용해 V-리그 홍보에 나섰다"며 "시간이 날 때마다 광주 시내 곳곳을 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